

1분기 K-푸드+ 수출 33억5000만달러

농식품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라면·K-간식·신선과일 수출 호조·농산업도 성장세

올해 1분기 K-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분기 K-푸드+ 수출액이 잠정 33억5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K-푸드+는 신선·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과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스마트팜 등을 아우르는 농산업을 합친 개념이다. 이 가운데 농식품 수출은 25억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농산품은 7억9천만 달러로 2.1% 늘었다. 권역별로는 중동 GCC 지역이 32.3%

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중화권 14.5%, 북미 6.3% 순으로 나타났다. 중동 지역은 3월 들어 물류 악화와 소비 위축의 영향을 받았지만, 1~2월 연초류와 인삼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체 1분기 실적은 크게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라면이 4억3천450만 달러로 26.4% 증가하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과자류는 11.4%, 음료는 4.5%, 쌀가공식품은 9.4%, 아이스크림은 18.0% 각각 늘었다. 특히 과자와 음료, 아이스크림 등 이른바 'K-간식'은 글로벌 소비 트렌드인 '헬시 플래저(Healthy Pleasure)'에 맞춰 저당, 저열, 비건 제품군을 확대 하면서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선식품에서는 딸기와 포도, 배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딸기는 4천620만 달러로 14.7%, 포도는 1천730만 달러로 24.6%, 배는 730만 달러로 69.2% 증가했다. 딸기는 지난해 폭우 피해 이후 신속한 복구와 병충해 관리 강화로 생산량과 품질이 회복되면서 싱가포르와 태국 수출이 20% 이상 늘었다. 포도는 대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며 소포장 프리미엄 과일 수요 증가에 힘입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농기계가 3억5천850만 달러로 3.9% 증가했고, 농약은 0.7%, 비료는 6.2% 각각 늘었다. 농기계는 북미와 동남아를 중심으로 계획

된 물량이 안정적으로 출하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농약은 브라질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남미와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됐으며, 비료는 인도와 필리핀 등 신시장 개척 효과가 반영됐다. 다만 동물용의약품은 라이신 수출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줄었지만, 백신 등 유망 품목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물류 최신 정보를 매주 제공하고, 수출비우체 예산을 신속 집행하는 한편 대체시장 바이어 매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가 익산 지역 선도기업들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 산업 협력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지역 협력 생태계 구축 박차

전북테크노파크, 익산 선도기업과 현장 소통 강화

전북테크노파크가 익산 지역 선도기업들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 산업 협력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2026년 제3회 선도기업 지역 대표자 협의회'를 지난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익산 지역 선도기업 대표자들과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주)윌소제 생산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지역 우수 기업의 기술력과 제조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원자재 수급 불안과 물류 리스크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 기업들은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단절 우려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수출 물류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익산 국가산업단지과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자동차 부품, 화학, 정밀기계 등 전통 제조 산업의 고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지역 내 제조 기반 기업 간 기술 융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 공정 도입과 친환경 제조 기술 공유를 통해 미래형 제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전북테크노파크는 중동 사태 관련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원자재 수급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안내했다. 아울러 2026년도 익산 지역 교류회 운영 활성화 방안과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주요 고도화 전략을 설명하며 대외 변수 속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오상근 기자

적정 비료 사용으로 중동발 수급 불안 대응 나선다

농식품부, 방한 논의... 적정 시비·완효성비료·가축분뇨 활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료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비료 사용과 대체 자원 활용 확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김경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과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료 원료 수급 문제 대응 및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무기질비료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가축분뇨 활용도를 높이는 등 우리 농업의 체질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농식품부는 비료 과잉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정 시비량 안내를 강화한다. '농업' 앱을 활용해 180만 농업인에게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발송하고, 전국 3,562개 읍·면·동 단위로 적정시비 권고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튜브 채널 '농리와TV'를 통해서도 적정 시비 효과를 적극 홍보한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술 보급도 강화된다. 농촌진흥청은 적정 시비 기술 매뉴얼을 제공하고, 각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현장 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저탄배질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 우대 방안과 미곡종합처리장(RPC) 평가 지표 개선도 검토된다. 또한 농가가 토양검정을 받지 않아도 지역과 작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표준 비료사용처방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 지원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전국 158개 액비 유통전문조직을 통해 액비 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액체비료를 무상 지원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살포비를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영농조합

법인 등 전문경영체에는 운영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비료 사용량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완효성비료의 사용 확대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효과 분석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가격 차등 지원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통한 구매비 지원사업 도입도 검토 중이다. 현장 점검도 한층 강화된다. 농촌진흥청은 시군별 15개 점검반, 총 462명을 운영해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점검에 나서며, 토양검정과 시비처방 건수도 전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주요 요소 사용 비료가 7월 말까지 9만8천 톤 규모로 안정 공급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지속적인 원료 조달을 통해 수급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개발공사, 고창 덕산 공공분양아파트 건립 본격화

전북개발공사가 고창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개발공사는 고창 덕산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 부지에 추진 중인 고창 덕산 민간참여 공동주택(분양) 건립사업의 민간사업자를 지난 2월 12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지난달 31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총 888세대 규모의 공공분양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전용 84㎡ 711세대, 전용 104㎡

101세대, 전용 125㎡ 76세대로 구성된 다. 민간사업자로는 공모를 통해 (주)영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단지 규모는 BL2 357세대와 BL3 531세대로 나뉜다. BL2는 전용 84㎡ 180세대, 전용 104㎡ 101세대, 전용 125㎡ 76세대로 조성되며, BL3는 전용 84㎡ 531세대로 구성된다. 전북개발공사는 이번 공공분양아파트가 고창군에 '데시앙' 브랜드를 통해 고품격 주거 공간과 양질의 분양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 국내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착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국내 벤처투자 확대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일 국민연금 기금의 대체투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벤처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정 규모는 총 4,000억 원으로, 최대 6개 위탁운용사에 자금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는 통상 연간 2,000억 원 이내에서 이뤄졌던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된 규모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벤처펀드 위탁운

용사 일괄 선정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1,500억 원,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2,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번에는 국민성장펀드 출생 등 개선된 벤처기업 투자 환경을 반영해 자금 규모를 대폭 늘렸다. 국민연금은 이번 선정 과정에서 벤처투자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이었던 핵심 운용인력의 겸업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부 기준은 공고문 내 제안요청서(RF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한-폴 탄소복합재 국제협력 간담회 열려

폴란드 제슈프시와 현지 투자·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방안 논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폴란드 제슈프시 대표단과 국내 탄소기업 간 협력 간담회를 열고 유럽 시장 진출과 공급망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달 31일 진원실용화지원 1등 오픈비즈니스룸에서 폴란드 제슈프시 대표단과 폴란드 투자무역대표부(PAIF), 국내 주요 탄소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복합재 국제협력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폴란드 제슈프시 방문과 11월 열린 '2025 탄소복합재 테크브리지 국제포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내 탄소기업의 유럽 현지 공급망 진입과 항공·방



한·건설 등 폴란드 주요 산업과의 협력 확대가 주요 논의 주제였다. 간담회에는 데크카본, 수테크, 아이스퀘어드럼, 아이에스동서, 피치케이 블 등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 탄소복합재 기반 특화 기술을 소개하고, 향후 시장 진출을 위한 기초 데이터와 현지 규제 대응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